



미리보는 **김영원** 초대전
성곡미술관, 10월 7~30일

가을을 알리는 비가 촉촉하게 내리는 9월 9일 오후, 경기도 광주학동리에 위치한 조각가 김영원 교수(68·홍익대 조소과)의 작업실을 찾았다. 김 교수는 10월 7~30일 열리는 서울 성곡미술관 10주년 기념 초대전을 앞두고 막바지 마무리 작업에 한창이었다. 성곡미술관 1층과 2층, 3층에서 만나는 이번 전시에서는 어떤 주제의 작품들이 선보일까.



'나'와 '내'가 서로 마주한 빈 공간은 텅 빈 층간의 공간이자 '나'를 바라보는 성찰의 장이다. 작품 '바라보다'는 크기와 보는 위치에 따라 전혀 다른 군상을 볼 수 있는 시각적 즐거움을 선사한다.

김영원 작가는?

김영원 교수는 1980년 문예진흥원 미술관에서 제1회 김영원 조각전을 개최한 이래 서울 환미술관 이목화랑 금호미술관 선화당 등에서 8번의 개인전을 열었다. 또 제22회 상파울로 비엔날레, 올림픽 10주년 기념 야외조각 심포지엄, 김포국제조각전 프로젝트, 부산비엔날레 조각 프로젝트, U대회 국제 조각 심포지엄 등에도 출품했다.

작품 감상 포인트?

김영원 교수가 말하는 감상포인트는 너무도 간단하다. "선입견을 갖지 말고, 보고 느낀 것 그대로 받아들이라." 내 마음의 편견이 없이 작품을 바라보면 작가가 생각했던 이미지와 감정이 관람객들의 마음에 그대로 흘러들어가게 된다는 것이다.

김영원의 작품 세계는?

수시로 변하는 유행사조나 시류에 편승하지 않고 30여년이 넘도록 자신만의 사실주의 인체조각에 전착해온 조각가 김영원 교수. 김 교수가 표현하는 인체는 관념적 표상 혹은 심미적 대상으로서의 인체가 아니라 일반화한 인간의 실재이다. 사실주의에 대한 집착은 인체를 통한 존재의 끈질긴 모색에서 비롯된다. 미술평론가 윤범모 교수(경원대 회화과)는 "김영원 교수의 장기는 인체를 사실적으로 형상화하는 기량이 탁월하다는 것"이라며 "특히 사실적으로 형상화된 인체로 특정 상황을 잘 표현해 내기 때문에 뛰어난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지적한다.

- 30여년간 사실주의 인체 조각
- 83년 이후 인간 잠재적 본성
- 90년대 초 禪을 작업에 접목

1977년부터 82년 사이에 제작된 '중력·무중력' 연작들은 주어진 환경에 따라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신체의 기능을 정확한 모델링 기법으로 묘사한 집합체이다. 이후 인체 구조의 변형을 통해서만 문제를 접근하려는 작업에 익숙한 김 교수는 83년부터 인간의 육신 속에 꿈틀거리는 잠재적 본성 등을 인간의 실체로 표현해 낸다. 90년대 초부터는 동양의 선(禪) 사상에 심취해 선 수행에서 얻어지는 심기(心氣)를 예술작업과 일치시키고자 노력했다. 오원배 교수(중국대 미술학과)는 "스스로 체험한 불교수행의 향기가 작품 곳곳에 배어나는 작가"라고 김영원 교수를 평하며 "불교사상을 불교적인 도상으로 드러내놓고 보여줌으로써 불교의 세계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불교사상을 현대적인 조각기법으로 풀어내었다"고 설명했다. 김지연 기자

비움과 충만 사이 '내 모습은...'



해체된 인체 틀속에 자유 형상화 작품 100여점 전시

평면 조각, 시·공간의 정지 상태 인간이라는 존재만 남아 있을 뿐 마주선 공간 무한한 가능성 가져

김영원 교수는 이번 전시회를 '인체의 틀을 해체해 그 안에서 자유를 구한' 작품 100여점이 채우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인간이 가진 욕망, 감정, 생각을 내려놓고 빈가 자유로워지는 것을 형상화 하고 싶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매일 좌선하고 명상하며 작업에 몰두했다.

김 교수가 만들어온 '인체사실조각'은 인체의 해부학적 구조 속에 작가의 사상과 감정을 입체 역동적으로 생동감 있게 구성한 작품이다. 그러나 이번 전시에서는 역동감과 실재감(實在感)을 강조하지 않았다. 오히려 인체조각이 가진 공간성과 시간성을 제거해 박제처럼 만들었다. 마치 사진을 오래 공간에 세워놓은 것처럼 시·공간이 정지된 순간을 조각으로 표현한 것이다.

왜 그랬을까. "자연이나 생활에서 '회'를 가졌고 나 외의 누구와도 소통이 불가능함을 느꼈어요. 보는 것도 대상을 통해 내 감정과 욕망을 보는 것이지 대상 자체를 보지 못했습니다. 나 외의 세계와 교감이 불가능한 방외요인은 뭘까 생각했죠. 바로 우리가 매일 갖는 욕망, 생각, 감정이었습니다. 내려놓고 무심

하게 바라볼 수 있다면 대상과 바로보고 대화할 수 있어요. 내가 '나'를 주장하지만 않는다면..."

김 교수가 말하는 '바라보다' 연작이 탄생된 계기이다. 이번 작품들은 인체라는 조각 이미지만 가져오고 인체가 지닌 질서인 '입체감'을 거부했다. 평면과 공존하는 반쪽 입체 '부조'를 떼어내 입체공간에 세워놓는 것으로 말이다. 인간이라는 구체성은 없다. 인간이라는 존재감만 남았을 뿐이다.

시공간이 정지된 상태에서 존재만 남은 '나'와 '내'가 서로 바라보며 마주 선 그 공간은 허무하다. 그리고 무수히 많은 것을 포함한 에너지로 충만하다. 이 공간은 한없이 많은 가능성과 자유를 가졌으면서 욕망이 없다.

앞으로 김영원 교수는 있는 그대로의 내 이웃 가족 친구의 모습을 만들고 싶다고 이야기한다. "내 생각과 감정을 배제시키고 진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만들어 보는 것"이 다음 작품의 구상이다.

▲ 1층 전시실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어진 '바라보다-그림자' 등 존재에 대해 이야기 하는 작품 10점이 전시된다. '물결 위의 색' '바람결의 색' '바라보다' 등은 인체의 왜곡을 통해 현대인의 정신을 표현한 작품들이다. '바라보다-그림자'는 마치 그림자가 길에 드러누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운 것이 실재인지 서 있는 것이 실재인지 구분되지 않는다.

▲ 2층 전시실 '바라보다'라는 제목의 하얀 인체들은 FRP 합성 수지로 제작됐다. '바라보다'는 총 84개의 개별 조각으로 이루어져있다. 인체의 뒷모습은 입체적으로 앞모습은 부조를 벽면에서 떼어낸 듯 평면이다.

그 평면 부분이 서로 마주하고 있는 조각들이 80cm에서부터 2m까지 크기별로 짝을 이뤄 2층 전시실을 가득 메우게 된다. 부조의 평면을 마주보게 함으로써 빈 공간의 가득참을 느끼게 한다.

▲ 3층 전시실 과거와 현재, 부조와 환조가 혼재된 공간이다. '바라보다'를 비롯, 10여점이 전시된다. 1층과 2층을 거쳐 클라이맥스에 이르렀던 긴장감이 편안하게 풀리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

빠대만 있는 상자로 표현된 상반신과 인체 하반신이 결합된 작품을 통해 삶과 죽음이 하나라는 것을 보여준다. 삶도 죽음도 없이 하나라는 것. 단지 변해갈 때뿐이다. 눈에 보이는 이 공간이 실제일 수도 있고 보고 있는 내 몸이 환형일 수도 있다.

김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인체사실조각에서 구현할 수 없었던 비정상적인 관절의 꺾임을 '부조'를 빌어 표현했다. '누운 것이 실재인가, 선 것이 실재인가'는 작품 '바라보다-그림자'로 김영원 교수가 관객에게 던지는 화두이다.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히**
불 전 함
수요증가로 시종품과 가격동일 움직이거나 단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각지역 대리점 모집
서원기전 ☎ 043-647-2378, 011-467-1472

연기와 화상 걱정에서 완전 해방된 새로운 쑥뜸용구 -
소자본으로 대리점 및 쑥뜸기 체험방 모집!
대박점은 틈새업종
허준선생의 東醫寶鑑 - "약과 침으로 치유되지 않는 병은 반드시 뜸을 떠야한다."
■ 제품의 특징
● 화상과 연기의 위험없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쑥뜸을 할 수 있다.
● 복부의 5개 혈자리를 동시에 뜸할 수 있는 획기적 효과가 있다.
● 타이머 정적으로 정확한 효능을 조절하고 연기는 호스를 통해 실외로 완전 배출
● 온열판 내장으로 쑥의 원적외선 유효성분이 체내에 유입되는 효과 증대
● 혈자리를 모르는 초보자나 노약자도 간편하게 쑥뜸을 뜸 수 있다.
■ 제품의 특징
● 벨트를 이용하여 무릎, 머리, 어깨, 허리 등에 간편하게 고정 할 수 있어 집중 쑥뜸을 할 수 있다.
● 타이머 정적으로 정확한 효능을 조절하고 연기는 호스를 통해 실외로 완전 배출
■ 제품의 특징
● 좌측기 내부에 온열판 정적으로 쑥의 원적외선 유효성분이 체내에 유입되는 효과가 증대 됨.
● 인체와 접촉되는 부위가 실리콘 재질로 되어 있어 끓는 물에 살균소독이 가능하여 위생적임.
● 타이머 정적으로 정확한 효능을 조절하고 연기는 호스를 통해 실외로 완전 배출
● 좌측기에 등받이가 부착되어 편안한 자세로 뜸을 할 수 있다.
의료용구로 허가를 받은 믿을 수 있는 제품
대구한의대 및 대구 한방병원 교수전에 의해 개발
특여 등품
ISO 9001:2000
UKAS
대리점 및 쑥뜸기 체험방 모집 문의전화
02)521-4453
www.moxa4u.com 오양쑥뜸·좌측기·음양쑥뜸기 제품구입 문의 02)521-6353-4

소중한 인연을 위한 정성 **고급력 장수 발효식품**
몸에 좋은 조청으로 심신을 새롭게 한다
전통 비법으로 산사에서 **산수조청**
스님에게 직접, 만드신...
◆ 산수조청은 공해시대, 무엇을 먹어야 안심할까 고민하는 당신에게 참 좋은 인연입니다.
◆ 산수조청은 산천 초목의 뿌리 잎, 줄기, 열매의 영양소를 고스란히 뽑아내어 우리 전통의 조청으로 고아낸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입니다.
◆ 산수조청은 비구니 스님들의 청정심과 지극한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뜻이 오르지 않는 **산수참죽 조청** 1.2kg
어혈, 냉증, 위장장애, 피로 독소, 적체의 해소, 신경조율, 항암, 원기회복등에 기여
산수靑미래 조청 1.2kg
중금속해독, 풍습제거(부종), 사지관절, 중풍과 임 예방에 탁월한 기여
산수약도라지 조청 1.2kg
기관지, 현식, 기침, 거담, 배농작용, 폐기능, 호흡기질환, 피로회복등에 기여
죽인기강을 100년째 100% 청연으로만 만들어오신 **산수조청 웰빙 자연당**
1100g×2병 = 18,000원
◆ 각종 요리, 무침, 조림 등 반찬 만드실 때
◆ 떡, 빵, 과일 드실 때 ◆ 고추장, 김치 담그실 때
옛날 방법 그대로 만든 순수한 맛. 이제는 산수조청 웰빙 자연당을 쓰십시오.
● 주문 및 문의: 대한불교조계종 금융사 054)372-3166
● 입 금 처: 농협 727077-52-056761(원순회)
맑은 마음 깊은 정성 **산수조청원**